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운영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주의 당부

베트남 광응아이성 관계자 일행, 진안 방문... 우호 교류 확대 위한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력 도시인 베트남 광응아이성 관계자 일행이 22일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우호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양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현지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베트남 내무부 부국장을 비롯한 광응아이성 공무원 일행은 계절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농가 속소와 농작업 현황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타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간담회에서 광응아이성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진안군과 농가들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진안군의 선진 농업 기술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배워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력 도시인 베트남 광응아이성 관계자 일행이 22일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우호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광응아이성의 농업 발전에도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988명을 배정받아 현재 956명이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194명이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라오스·필리핀 등 3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762명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숙소 환경 개선과 고충 상담, 근로환경 점검 등

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 국가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광응아이성을 비롯한 협약 국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분야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예방접종 참여 강조

진안군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1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주와 대구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와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지만 드물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감염병이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회복 이후에도 언어장애나 마비 등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이 남을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접 지역에서는 꾸준히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진안군보건소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 최소화 △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및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변이나 축사 인근 고인 물 제거 등 모기 서식지 없애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이 있는 감염병인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과거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유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진안군보건소는 여름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수칙 안내와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을 반드시 지켜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이착륙장 안전점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이착륙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수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웃도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중증응급환자 생존을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헬기 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 5월 원광대학교 병원과 닥터헬기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전문치료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구급차 진입로 및 대기장소 확보 여부 △주변 장애물 존재 여부 △안내판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응급의료헬기 인계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최훈식 군수는 "응급의료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돼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 점검과 관리로 응급의료헬기 인계점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응급의료헬기 인계점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프로그램 통해 만든 쿠션 기부

귀농·귀촌인·주민 함께 만든 쿠션, 무주종합복지관에 전달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22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제작한 쿠션 120개를 무주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쿠션은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된 실용교육 프로그램 '솜씨를 뽐내보자'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배움을 나눔으로 연결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기술을 배우고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에 따르면 '솜씨를 뽐내보자'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 17일부터 18일까지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나순녀 강사의 지도로 바느질 기법을 익히고 광목을 활용해 이불세트와 쿠션 등 생활용품을 직접 제작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가족센터, 장수군 온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홍선희)가 지난 20일 지역주민 73가정,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장수군 온가족사랑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섯 가지 감동, 오감으로 물드는 가족사랑'을 주제로 열린 축제는 급격한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오감(五感)을 활용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가족사진 촬영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제7회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출판작 전시

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



족 다양성 카드를 공유하고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로마 석고방향제 만들기와 압화 캘리그래피 엽서 제작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김덕배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월드 클린 시스템' 김덕배 대표가 22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김덕배 대표는 무주군 무주읍 가곡리 평촌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고향 무주가 잘 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으나마 고향 무주와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7% 돌파

진안군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에 대한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접수하고 미신청자도 2차 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신청을 진행 중인 가운데 6월 18일 기준 전체 대상자 2만 1,148명 중 2만 673명이 신청을 완료해 97.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마감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돼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는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5만 원이 지원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 지정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